

어린이 책꽂이

▲보물섬=영국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인 '보물섬'의 생생한 400페이지에 고스란히 담은 완역본. 부모님이 운영하던 여인숙에서 허드렛일이나 도우며 살던 평범한 소년 짐 호킨스가 홀로 해적선을 차지하고 스스로를 선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과정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시공주니어·1만2천원>

▲지도없이 떠나는 101일간의 불가사의의 역사는 세계의 미스터리 역사를 한눈에 보는 세계 문화역사 탐험서. 진시황릉, 스펀텐지, 나스가 문양, 피사의 사탑, 피라미드, 타지마할 등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유적들이 소개돼 있다. <영교출판·9천원>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 인물이야기-레이첼 카슨 = '침묵의 봄'을 출간해 전 세계에 환경 문제를 경고했던 레이첼 카슨의 삶과 자연사랑을 담은 그림책이다. 레이첼 카슨의 생애와 업적을 일일이 나열하기 보다는 그가 가진 자연, 특히 바다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보여준다. <초록개구리·8천500원>

▲모차르트의 비밀친구=음악신동 모차르트와 그의 좋은 친구이면서 작곡을 도와주었던 음악장령 아바데의 이야기를 다룬다. 모차르트의 평범하지 않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만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고뇌 등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소년년길·9천원>

▲자연과 만나요=끓임없이 달라지는 계절과 날씨, 친근하고 신기한 식물, 개성 넘치는 동물 등 생생한 사진으로 만나는 자연백과사전. 지구, 풍경, 꽃, 식물, 과일, 채소, 동물 등으로 나눠 자연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았다. <웅진주니어·1만3천원>



'왕따' 중학생 눈으로 본 부조리한 세상

핑퐁 박민규 지음

톡톡 튀는 문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작가 박민규(38)가 3년 만에 장편소설 '핑퐁'을 발간했다. 저자는 지난 2003년 장편소설 '지구영웅전설'과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으로 각각 문학동네 신인작가상과 한겨레 문학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소설집 '카스테라'로 신동엽 창작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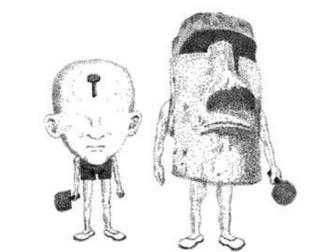
이처럼 저자가 내놓는 작품마다 각종 상을 휩쓸고 있는 것은 그의 기발한 상상력과 시도들이 시도로서만 끝나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번 소설에서도 저자는 주인공의 독백을 작은 글씨로 처리하고, 자신이 그린 일러스트 5컷을 포함시켜 등 심혈을 기울였다.

'핑퐁'은 왕따를 당하는 중학생 2명이 인류의 운명을 건 탁구 한 판을 친다는 다소 황당한 설정이다. 주인공 '못'과 '모아이'는 치수 패거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맞는다. '못'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도 "치수가 머릴 때릴 때 멀리서 보면 꼭 못이 박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것이다.

'못'이 "허약하고, 겁이 많고, 눈에 띄지 않고, 공부도 못하"는 왕따의 전형이라면 '모아이'는 물주(物主)에 가깝다. '모아이'는 일종의 모양과 크기가 남태평양 어느 섬의 수수께끼 석상과 같



은 느낌에서 불어온 별명이다. 이들은 항상 치수에게 '세트'로 얻어 맞는다. 치수 패거리는 "완력과 폭력, 기만, 조작, 장악, 이용, 유지, 회유, 신압, 살륙, 조종..."에 능하고 원조교제를 사주하는 등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만큼 악하고, 윌등하다. 이들이 다수결로 운영되는 세계를 대표하는 2%에 해당하는 것처럼 활개치는 인간이라면, 주인공들은 나머지 98%에도 들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폭력에 노출



저자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 '못'과 '모아이'.

"다들 잘 하고 있습니까?" 위선에 찬 현대인에 반문

원 존재다. 주인공들은 심하게 얻어맞은 어느 날, 벌판에서 탁구대를 발견하고 탁구를 치기 시작한다. 라켓을 사기 위해 들른 탁구용품점 '렐리'의 주인 '세프라렐'은 이들을 탁구계로 안내하며 '탁구계의 간섭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낸다. 세프라렐은 탁구야말로 '원시우주의 생성원리'이자 운물체 또는 '씨스탑'이고 인류의 역사는 꼬비 때마다 탁구게임으로 좌지우지돼 왔다고 설명한다.

7가지 주제로 20세기 거짓말 파헤쳐

21세기에는... 정해진 외 지음

'21세기에는 바뀌어 할 거짓말'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사람·과학·사회·한국사·북한·남자·인도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는 "안락하게 불안정한 존재"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과학자 술가 김동광씨는 황우석 사태를 비롯한 과학사기 사건 등을 통해 '국가의 사회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주제로 과학의 거짓말을 보여준다.

역사학자 한홍구·박노자씨는 '한국사의 거짓말을 논쟁하다'를 주제로 대담을 갖고, 거짓말의 색깔·국가 교과서·단군·사회화·한미관계·박정희 등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생각 교류를 들려준다.

이 밖에 변호사 김두식씨는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 새터민 김형덕씨는 '북한', 비정규직 노동자 정희진씨는 '남자의 거짓말과 말의 권력관계', 평화운동가 프라폴 비드라이씨는 '인도'를 주제로 20세기 거짓말의 실체를 파헤친다. <한겨레출판·1만2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여성들이 직접 발로 쓴 좌충우돌 여행기

여행 좋아하세요... 유이 엮음

'여성들이 여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새겨 보게 만드는 색다른 여행기가 출간됐다.

'또 하나의 문화'의 여행 모임을 이끌었던 유이가 엮은 '여행 좋아하세요?'-지구별을 여행하는 여자들을 위한 안내서'는 여성들이 여행에 대해 풀어놓은 이야기 모태이다. 여성학자 박혜란은 '해남 가는 길'에서 지금은 떠나버린 시인 고정희를 추억하고 책을 엮은 유이는 허나설현의 흔적을 찾아 그녀의 무덤을 찾는다. 또 예순살에 홀로 유럽 배낭여행을 감행한 박형욱의 좌충우돌 여행기를 비롯해 제주도, 인도, 베트남, 9·11 이후의 미국, 평양 등을 발로 훑은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조한혜정, 박형욱, 정희진, 조은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으며 전 세계 여성 여행자들을 엮은 웹사이트를 만든 예블린 하는, 여성주의 여행 커뮤니티 사이트투어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화·9천800원>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노신전집'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어지간한 집에는 읽던 읽지 않던 문학전집 같은 것들이 한질 쯤 서가를 장식하고 있기에 마르던대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문학전집이라는 것이 한질 책장에 꽂혀 있었다.

무려해설 때마다 한권씩 꺼내 읽었던 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책이 딱 한권 있었는데 그이유인 즉 대개는 중장편이어서 금방 읽기가 지루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책이 '노신전집'이었다.

단순히 글의 분량이 짧은 이유로 노신전집을 완독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당시의 기억으로는 '놀함', '광인일기', '아류정전' 등과 같은 글들이 기억에 남을 뿐 내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십여 년이 지난 후 그 때 읽었던 노신의 소설뿐만 아니라 100여 편이 넘는 그의 산문과 그의 행장에 관한 기록들까지 거의 모두를 다시 찾아 읽게 되었으니 내게 어찌 각별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당시에도 노신을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중국의 소설가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980년대 초 어설픈 화가 지망생으로 소위 관화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목판화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중국목판화운동의 배후에 노신

민족의 정신적 각성 일깨워



이라는 큰 실천적 지식인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도 우연히 친구에게 배운 어설픈 일본어 실력으로 대판시립미술관에서 발간한 '근대 중국의 문화'라는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다.

과문함을 탓하기에 앞서 나는 반갑고도 기쁜 마음에 노신에 관한 글들이라면 무조건 구해 읽는 버릇이 생겼고 어려운 시기 문예운동이 자리해 아할 지점이 어디인가를 그를 통해 배웠다.

알다시피 노신의 본명은 주수인이다. 원래 그의 조부는 청말 함라학사를 지냈으나 정치적 몰락으로 그의 유년은 가친의 약 수발을 위해 전당포를 들락거리는 것이 일이었다. 아마도 그가 의사가 되려했던 꿈도 거기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의사로서의 꿈을 접고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까닭이 뉴스영화에서 동포가 일본군에게 처형되는 것을 보고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자기 민족들에게 육체적 건강에 앞서 정신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자각 때문이었다는 고백은 그의 문예전선으로의 투신이 갖는 의미를 말해준다.

끊임없는 수배생활의 와중에 수많은 글들을 쓰고 조화사, 신창년 등의 출판운동을 하는가 하면 상해에서 만난 젊은 미술학도들을 위해 관화강습회를 열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주다가 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고대 동양 사람들이 발명했던 것으로 풍속을 만들고 방위를 보기 위해 사용된 화악과 나침반을 유입한다는 충포와 항해에 이용해 그를 가르쳐준 중국의 스승을 참혹하게 쏘아버렸다. 그중 피해가 없어서 있고 있는 것이 인쇄술인데 그를 통해 종가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라고

고... 소위 문화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때에 그의 말은 지금 곱씹어 들어도 의미심장하다.

김경주 (동신대 교수·광주민예총 회장)



정우부동산랜드
(대) 1671-0823, (민) 011-607-2213
익산권신리유자과수원 1500평
남구 승촌4단지 257평 매도
나주 도로 신사리 배밭 4700평
나주 운곡농공단지 1030평
장흥 유치 대천리(전·담·임)
진월동APT입구 상가부지 380평
나주 남평 서산리(드림강원원지)
나주공단 금곡 생녹지 458평
나주 평신리 배밭 1850평
양과동 G/B 597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대) 1862-7100, (민) 010-4325-1323
장성지역
공정부지, 불류참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시는 평수대로 가능한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함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정성군 삼계면 4차선점
대차-약3000평
건물-1-철골조 2층 437평
건물-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철충가능)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대) 3522-9422, (민) 011-643-3210
동림2지구 앞 하남로 대로변
동림2지구 대입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대) 010-9455-2200, (민) 674-1500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이장동 1중 주거지역 근매
남구 양과동 2중 주거지역 근매
남구 회정동 1중 주거지역 매매
광주 남구 대지동 중용택매매
남구 양과동 대지 근매

신도시중개사
(대) 061-833-8669, (민) 010-8004-6669
심고흥 -여수 연육교 앞 아름다운 심
3500평, 별장, 전원주택지로 최적/당5만원
우주센타
고흥, 맑은 계곡물흐르는 곳
630평 편성,가든,전원주택,부지토착적(그림같은)당38만원
우주센타
고흥 바다와 환하게 앞으로 보이는 평, 농박장,과수원 최적(임야6천평) 평당5천원
심
완전개인독점 6천평, 완도군 금일읍, 마을앞바다/전기수도 가능(전축가능) 당5만원(교환도 가능함) 상가,아파트

국민공인중개사
(대) 011-635-7939, (민) 010-3114-6103
47억 빌딩
550평 평당 650만원
360평 평당 850만원
140평 평당 900만원
70평 평당 1000만원
10억8천시외문헌학원 근매
550평 평당 650만원
360평 평당 850만원
140평 평당 900만원
70평 평당 1000만원
10억8천시외문헌학원 근매

한 일 지도 (주)
(대) 529-1409, (민) 010-2466-1409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책 판매중
이번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광주·전남 전지역
실사확인도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한 일 지도 (주)
(대) 529-1409, (민) 010-2466-1409